

# “진정한 웰다잉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

##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 세미나서 월호 스님 주장

최근 탤런트 최진실씨를 비롯해 생활고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1위다. 국민 중 1명은 최근 1년 이내 자살을 생각해왔고 10명 중 3명은 우울증을 갖고 있다. 개인의 죽음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법은 없는지, 인간의 삶을 구현하는 종교계에는 어떤 해법이 있는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불교적 웰다잉(Well-dying)을 고민하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은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웰다잉 문화운동을 위한 불교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을 비롯해 정덕 스님(불교상담개발원장), 박광서 교수(서강대)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월호 스님(쌍계사 승가대 교수)은 기조강연 ‘웰다잉에 대한 종교적 고찰’에서 불교적 인연설에 비해 삶과 죽음에 대해 설명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스님은 인연설의 인(因)을 다스릴 것을 주문했다. 스님은 “인연설의 인(因)은 주관적 요인이며, 연(緣)은 객관적 요인이다. 주관적 요인은 내 마음가짐이나 노력 등을 말하고,

객관적 요인은 주변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에 대해 스님은 인(因)×연(緣)=과(果)라는 공식으로 풀이했다. 월호 스님은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100이고,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100이면 고통은 100×100=1만”이라며, “마음가짐이 10으로 줄어든다면 외부의 스트레스가 200이 되도 고통은 2000으로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 당시 한 비구가 장모를 험담했지만 장모의 태연함에 모함한 비구가 참회했다”며, “인이 공(空)이 된다면 연이 아무리 커도 결과는 공(空)이 되는 이치”라 설명했다.

월호 스님은 “아라한은 근거 없는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아와 공을 체득한 아라한은 무학의 경지로 더 이상 불연전연소는 없다”며, “진정한 웰다잉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 주장했다.

진정한 웰다잉, 행복을 위해 스님은 방향을 강조했다. “하루 1000번씩 웃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웃을 일이 생겨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웰다잉입니다.”

국내 생사학 권위자 오진탁 교수(한림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

적 사유’를 발표했다. 오 교수는 “웰빙의 참뜻은 웰다잉에 있다”며, “웰빙을 삶의 문제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웰다잉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웰다잉을 위해 죽음준비를 소개했다. 오진탁 교수는 “죽음준비는 ▲유한한 삶을 인식해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라 ▲급작스런 죽음에도 편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로 정리된다”며, 죽음준비를 갑자기 찾아올 죽음을 대비해 삶을 의미있게 살라는 뜻으로 정리했다.

“정신의학에서 본 삶과 죽음”을 발표한 이근후 명예교수(이화여대)는 죽음을 망자의 주관적인 느낌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죽음을 보기로 나눴다. 이 명예교수는 “망자의 죽음에 대한 주관적 느낌은 살아남은 자들이 덧붙이거나 폄하할 수 없다. 그 느낌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망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존엄하게 떠나보낼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가 안락사나 존엄사”라고 말했다.

신산철 사무총장(생활개혁실천협의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웰다잉 장례”를 발표했다. 신 사무총장은 2008년 6월 26일 시행된 ‘장사 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자연장(自然葬)을 설명했다. 자연장은 화장 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



월호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방법이다. 수목장은 수목에 이용한 방법으로 자연장의 한 형태다. 신산철 사무총장은 “자연장은 경제성·다양성·세대간 연대성 등을 갖춘 친환경적 장례법”이라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능행 스님(정토사관자재회 이사장), 김애주 교수(동국대) 등이 참가했다. 능행 스님은 ‘호스피스, 불교적 관점에서의 실천적 과제’에서 ▲죽음을 바르게 인식할 전문교육프로그램과 죽음에 대한 인성교육의 필요성 ▲임종문화의 대중화 ▲종단차원의 의료복지 지원 ▲임상 포교의 전문성 및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김애주 교수는 ‘웰다잉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통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위한 죽음의 공헌화 ▲불교상조회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news.com

**Tip** 여기서 잠깐!

웰다잉(Well-dying)은 웰빙(Well-being)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고 잘 사는 것이 또한 잘 죽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웰빙과 웰다잉은 상통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한글대장경’ 범례 설정 시급

## 정승석 교수, 전집으로의 일관성 부족 지적

“<한글대장경> 체제와 구성의 완비를 위해서는 범례, 해제, 본문, 역주, 색인을 갖춰야 한다. 현행은 유지하며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례 설정이 시급하다.”

동국대국학진흥원(원장 원운) 설립 37년 만인 2001년 9월 6일, 318책을 발간하며 <한글대장경> 편찬사업이 끝났다. 대장경의 일반 편제에 비해 기형적인 체제를 갖춘 <한글대장경>은 외면당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정승석 교수(동국대·사진)가 <한글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따른 최후 선 과제로 범례 설정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소장 보광)가 11월 6일 동국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0회 학술세미나에서 정승석 교수는 ‘<한글대장경>의 체제와 구성’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한글대장경>은 ‘완결’됐지만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찍이 <한역대장경>의 자국어 번역에 착수했던 일본은 1929년 <소화신찬 국역대장경(昭和新聞 國譯大藏經)>과 1935년 <국역대장경(國譯一切經)> 간행에 이어 199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신국역대장경(新國譯大藏經)> 간행을 통해 기존 <국역대장경>을 개선해왔다.

정승석 교수는 “완간된 <한글대장경>은 지속적으로 추가해야 할 필수적 토대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 토대에 위의를 갖추는 후속 작업이 <한글대장경>의 당면과제”라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한글대장경>의 체제의 원인을 국고지원금의 유무와 규모에서 찾았다. 정승석 교수는 “국고지원금이 고갈되면서 침체기를 맞다가 국고지원금을 다시 확보하면서 활기를 맞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한글대장경> 간행은 체제와 구성보다 역경사업 완수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정적 난관 없이 침체기를 겪지 않고 <한글대장경> 간행이 지속했다면 구판 체제로 완결됐을 것”이라며, “침체기는 <한글대장경> 체제와 구성에서 구판과 신판의 분기점”이라 말했다.

<한글대장경> 구판은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채택한 일본의 <대



정승석 교수(동국대)가 <한글대장경>의 논소부를 한국전술부로 대체하고 남전부판이 추가됐다. 이후 구판의 기존 체제를 상실한 채 원형을 유지하거나 재편집돼 신판에 편입됐다.

정 교수는 “본연부에 속한 불전 일부를 과격적으로 격리하는 등 신판은 <한글대장경>의 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간행됐다”고 지적했다. 정승석 교수는 “<한글대장경> 구판은 신판의 전신이며 현대 한국 불교 역경사업의 효시로서의 가치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구판은 출생의 비밀을 은폐하듯 사생활”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찍이 <한역대장경>의 자국어 번역에 착수했던 일본은 1929년 <소화신찬 국역대장경(昭和新聞 國譯大藏經)>과 1935년 <국역대장경(國譯一切經)> 간행에 이어 199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신국역대장경(新國譯大藏經)> 간행을 통해 기존 <국역대장경>을 개선해왔다.

정승석 교수는 “완간된 <한글대장경>은 지속적으로 추가해야 할 필수적 토대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 토대에 위의를 갖추는 후속 작업이 <한글대장경>의 당면과제”라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한글대장경>의 체제의 원인을 국고지원금의 유무와 규모에서 찾았다. 정승석 교수는 “국고지원금이 고갈되면서 침체기를 맞다가 국고지원금을 다시 확보하면서 활기를 맞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한글대장경> 간행은 체제와 구성보다 역경사업 완수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정적 난관 없이 침체기를 겪지 않고 <한글대장경> 간행이 지속했다면 구판 체제로 완결됐을 것”이라며, “침체기는 <한글대장경> 체제와 구성에서 구판과 신판의 분기점”이라 말했다.

<한글대장경> 구판은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채택한 일본의 <대

정승석 교수는 “방대한 전집에서 범례와 색인이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글대장경>은 내용 구성에서 날권으로서의 일관성은 일정 수준 유지돼도 전집으로의 일관성은 빈약하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전반적인 재정비에 앞서 총괄적 번역지침 범례부터 갖추자”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 ‘2008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 남동신 교수

## ‘현장의 인도 구법과 현장상의 추이’ 논문으로 수상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와 계간 <불교평론>(편집위원장 김성철 교수)은 ‘2008년 불교평론 올해의 논문상’ 수상자로 <불교학연구> 제20호에 ‘현장의 인도 구법과 현장상의 추이’를 게재한 남동신 교수(덕성여대·사진)를 11월 4일 선정했다.

월호 전문가로 통하는 남동신 교수는 1984년 서울대 국사학과·대학원을 졸업하고 1995년 학위논문 ‘원효의 대종교화와 사상체계’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장 스님의 전기에 대해 기존 학계에서는 <자은사상장법사전>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 남 교수는 <대당서역기>(646년) 이후 <속고승전>의 ‘현장전’ 초고(647년)와 최종본(664-667년)을 거쳐 <자은사상장법사전>(688년)으로 내려오면서 현장의 전기가 신화화된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어 그는 <유가사지론> 중심의 유가론학과 <성유식론> 편역 이후 대두된 범상유식학과

간의 학과적 갈등 등이 현장과 관련한 스토리 철학과 관련된다는 점을 논증했다. 불교평론 심사위원회는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광범위한 섭렵과 연구자료를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주제



남동신 교수

의 독창성 등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논문으로 평가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남동신 교수는 “평생 원효를 연구하겠다”를 밝힌 후, 원효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인 ‘화쟁’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쓴 논문이었다”며, “첫 논문을 발표하지 만 20년 되는 해 큰 상을 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11월 28일 오후 6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02)739-5781 조동섭 기자

# 한국불교학회 세미나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는 11월 22일 오전 9시 30분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2008년 가을 전국불교학술회의 및 정기총회’를 연다. 학술회의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부에는 불교교리·불교사학·응용불교 분야에서 자유주제 논문이 발표된다. ‘근대불교 선각에 대한 회고’를 주제로 열리는 제2부에는 정승 명예교수(동국대)가 ‘백성육의 불교사상과 활동’, 김상현 교수(동국대)가 ‘갑빈린과 한국 근대불교학’ 등을 발표한다. 이어 정기총회에는 예산 결산 및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 (02)2260-3130 조동섭 기자

# 천하 대도 대웅맹정진 도통으로 죽음의 뿌리를 끊고 귀신포망을 넘어 육신의병, 정신의병, 잡신의 병을 태양 진광진법으로 최고 스승되는 무자년 회향 누진통 대법회

건강과 생명의 근본은 태식이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는 죽음의 뿌리를 끊는데 있습니다.

● 경신수행으로 귀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천문도통으로 죽음의 뿌리를 끊고 막힌 운명을 찾아 도통하여 미래를 창조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련법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도통군자 비법으로 주인공 되시고 건강과 생명을 찾아 만사형통하는 최첨단 대웅맹정진 수행법회에 도통하시고 죽지않는 법 전수 받으세요. 진인도통군자 제위 귀하를 누진통 대법회에 초대, 삼라만상 생명의 근본 태양진법인고로 자시와 오시에 정언하는 날이며 경신일, 해안과 마음에 정언을 안하면 견성이나 득도가 되지 않고 한생을 고생만 하는 것이다.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진 도법으로 만세에도 전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무자년 천년이 시작되는 해이므로 천용진인 태일대사는 만천하에 전하는 바 이오니 경신도법에 전하는 것은 후천대도인 이소식을 도통군자 후학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지도는 울지나 말하지 않게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와 기국이나 인물이 아닌 자에게는 전하지 말지니라. 특히 육신과 병이나 최면으로 사용하여 이득이나 취하고 자나 문중이나 도반과 의리를 배신하는 자나 특히 스승을 배신하는 자에게는 삼가할지 아다.

● 경신도통이란??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을 연장하는 비법으로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국을 밟아도 밟이지 않고 신병으로 치료해도 안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민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해하는 것이고 도통군자는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이 되어 일류 스승으로 만병을 다스리고 귀신잡신도 제도하는 것이며 병이나 최면으로 받은자는 해원상성이 되지 않음으로 저승으로 병의되어 악신으로 남아 저승들의 일생을 막는 귀신잡신인 것을 오직 태양에 진광진법이라고는 차유가 되지 않은 것이며, 특히 병이려는 자는 저승이나 가령이 없는 지만 사용하는 것이다.

◆ 신장 귀속들을 부려 말문과 글문과 도통군자들과 영통능력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을경과 육추경 주문으로 신장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룰 수 있는 특별비법인을 수행하세요. 본 종단입문안내 본 달마종단에서는 말법중생을 구제하고자 뜻이 있는 스님, 비구, 비구니, 포교사, 정법사,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종교를 초월하고, 후천달마도법으로 수행하여 말법중생을 제도하고자 뜻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문이 열려있습니다. 말법중생에는 지구촌 49억 청반정 받은 우리 백의민족을 구하여 불국토도하는데 우리 모두 두 자비살천으로 중생을 구제합시다. 나무동토달마조사불.

진통 수행은 즉시 도통전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과 건강을 연장하는 즉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다. 특히, 집전이나 수행자, 지도자들이 자기 제 육신이나 관리 못하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특별 무진통 경신수행으로 경신도통하여 천하제일의 경신도통 심령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 의술도통으로 방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군자 지도자 되는 특별기도 주문으로 득도하시오.

◆ 천하대도 루진도통으로 기천문을 열어 상통천문달마지리로 자신의 건강과 배꼽, 두뇌로 숨을 쉬어 정신,심신,육신에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을 귀신과 잡신에 포망을 넘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육경신 수행인문으로 생명과 수명을 연장하는 도통군자 서명자 되시어 지구촌 이그리진 법도를 세우는 도통군자 되소서.

◆ 제2도장 태양의 집 -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명당 수행처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비산비야, 비승비승 출현 태양의 집 ※ 특히,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을 연장하는 심신수련 특별점진법으로 죽신 시뮬하여 경신도통으로 부처로 잘 살수 있는 비법과 병 없이 수행장수 성취하는 전법도량 이 법도는 천정비법인 건강장수하는 비법이다.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6-239-3110 세계불교달마중 육경신 도통회 제2도장 태양의집

● 입제 : 양력 2008년 11월 15일(음, 10월 18일 토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08년 11월 16일(음, 10월 19일 일요일)(해시)  
02-821-6622, 821-7767, 016-239-3110  
● 동명 029-01-167866 광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물질손해확정담당 구내치료비	교통상해 간병비
담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질병사망 수술비용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심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중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웅 조 달 마 경 신 도 통 회  
세계불교 달마중 중 본산 태일합장